

옛 전남도청 자료조사 TF 출범...원형 복원 탄력

광주시, 13명 위원 참여 ... 사업비 예산 반영 추진 5·18 시민군 활동 기록, 건물 배치도 등 자료 수집

광주광역시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까지 항전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모두 13명으로 시민사회단체와 5·18 관련 단체, 시의회, 언론사 등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존자료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타기관에 산발적으로 보관된 자료와 민간인 증언(구술)을 확보하는 등 임

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자료조사 및 수집 TF'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TF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기록과 건물 원형 배치도 등 옛 도청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한다. 시청과 도청, 경찰청 등 지역 기관 그리고 5·18 단체와 연구소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우선 모을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도

군 당국과 사법·정보기관이 소장하고 있을지 모를 기록 확인과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도청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하고 옛 도청 복원 계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복원 계획안을 확정해 사업비가 내린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TF는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러지면 옛 도청 복원이 진상규명 활동과도 맞물릴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옛 전남도청을 80년

광주항쟁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정한 원형 복원 대상에 포함된 공간은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이다.

앞서 문화전당 측은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민주평화교류원에 포함된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가 기초자료 조사와 수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면서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까지 항전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도시공사 사장 3차 공모 후보자 자격 논란

경고처분·고령·경력 미미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놓고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사장 후보 3차 공모 결과 70대 전직 교수, 한 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책은행 전직 간부, 충청권 공기업 전직 사장, 건설 관련 기업 임원 등 5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지난 번 1, 2차 공모에도 참여했던 후보 2명은 최근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3명이 이날 면접에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지방공기업 사장을 지낸 모 후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선정한 '박근혜 정부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포함된 인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후보는 사장 임기를 한 달

여 남겨두고 사퇴한 뒤 응모했으며 사장 제임 시절 특정사업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시의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에 참여한 또 다른 후보들도 고령이거나 기업 임원 경력이 전부여서 거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면접심사 뒤 복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월 3월 두 차례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일부 임원이 이른바 '셀프 추천'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지역 종돈장,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청정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지역 종돈장 주요 가축 전염병 검사 결과, 모두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남 종돈장 18곳, 돼지정액 등 처리업체 2곳의 가축 1244마리를 대상으로 5510건의 가축 질병 검사를 했다.

검사 대상 전염병은 구제역, 돼지 열병,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돼지 브루셀라병 등 5가지였다. 검사 결과 구제역은 아의감염 항체(NSP)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

다. 백신 접종 항체(SP)는 양성률 83%로 기준(60% 이상)을 웃돌아 양호했다.

돼지 열병은 모두 항원 병원체 음성으로 분석됐으며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은 9%로 기준(80%)보다 높았다.

다른 전염병도 모두 항원 음성으로 감염 개체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시험소는 밝혔다.

시험소는 종돈장·개체별 가축 전염 검사 결과와 검사 증명서를 해당 시·군 과 농장에 교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개발

광주시민총회·정책마켓 정치 브랜드 육성 용역 발주

광주시가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한다.

광주시는 17일 "5·18 행사 기간이었던 지난 5월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개최했던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모델 개발하고 광주의 시민참여정치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민주주의의 광주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9월까지 완료한다.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구축을 통해 더 높은 행정·사회·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의 시민참여정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용역이 진행된다.

또 광주시민총회 및 시민정책마켓 행사의 평가와 개선 과제 도출, 시민참여 민주도시 모델구축을 위한 비전과 개념적·구조적 틀을 짜고 참여와 소통,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협치, 시민총회, 민관협력,

마을자치 등 개선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용역은 이달 말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결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광주시민총회는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민회에서 제안된 100개의 정책을 사전 시민총회와 현장투표를 거쳐 10개를 선정해 현장에서 발표와 투표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100대 정책 중 광화문 1번가 제안으로 적합한 13개 정책을 지난 6월30일 광주를 찾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공동체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면서 "광주는 1980년 5월 고도로 성숙된 공동체를 경험한 바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동구청, '폴리' 관리 허술

상인 반발 철거 추진 새 폴리 설치 미온적

광주비엔날레의 대표 산물 중 하나인 폴리(Folly·도심)를 장식하는 작은 건축물과 예술작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허술한데다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철거를 추진하기도 하고, 새로운 폴리 설치에도 미온적이었다. 해외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광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해 놓은 예술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눈치를 보며 철거를 하려 한 셈이다.

전영원 광주 동구위원은 17일 구의회 구정 질의를 통해 동구청의 폴리 관리 문제점에 대해 질책했다.

전 의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일 동안 동구청이 진행한 금남공원 유동성 조절 폴리에 대한 존치 투표가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며 "폴리에 대한 이해 없이 존치

투표를 하는 것은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인 반달리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석초 인근 보행자전용도로에 들어서서 폴리에 대해 동구가 민원과 안전을 이유로 인허가를 못거리고 있다"며 "폴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문화 예술 특구'인 동구의 자선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금남공원 유동성 폴리는 현실적으로는 금남공원이 보이지 않아 미관상 답답하고 운전 및 보행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라도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론 조사를 했지만, 찬반은 가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서석초 폴리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품 설계와 설치를 해달라고 비엔날레에 통보했다"며 "조만간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면 방향 중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내년 대상 2곳 공모

특히 강원 가우도는 마을 공동식당 운영과 황가오리뿔 판매로 3억원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마을 주민 전원이 마을기업 직원인 유일한 섬마을이다.

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 18일 섬 주민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 간이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 8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30%)와 현장평가(70%)를 통해 9월까지 2개 섬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8억원씩 모두 40억원을 지원해 둘레길, 마을 식당, 마을 펜션 등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협의회 구성, 마을 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주민 교육도 병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4만 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